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서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청안靑安하십니까? 지난해 UN 본부를 방문했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최근 지구촌 곳곳의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분주하신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슬람권의 민주화 과정에서 더 큰 인명의 희생을 막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역설하는 모습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그 노력에 세계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긴장과 갈등, 분쟁의 도가니에 빠져있습니다. 저마다 국가와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를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상대방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현상만으로 보면 부처님이 표현했던 다툼의 세상, 고해苦海의 세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UN이 있어 세계의 평화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UN을 이끄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노력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과 빈곤퇴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인도주의에 입각한 각종 재난 구호 등은 이제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공조를 구축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는 총장님의 리더십과 지도력은 이제 세계인들이 함께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장님의 노력은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가 낄줄과 씨줄로 연결된 하나의 인드라마 세상이며 그 속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화로운 세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울림이 되어 세계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작은 인연도 소중히 하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총장님의 온화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세계 곳곳에 갈등의 현장이 있기에 그 갈등을 해결해가는 화쟁和諍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소통과 화합으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기 위해 반총장님의 UN사무총장 재임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UN사무총장 연임에 도전하는 총장님의 뜻을 한국불교의 사부대중과 함께 적극 지지합니다. 아울러 세계의 평화, 인류의 공존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한국불교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격무도 밝게 수행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불기2555(2011)년 6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